

필리핀 태풍 재난 돕기에 불교계 '한마음'

조계종·구호단체 등 구호·모금 활동 전개 활발

유례가 없는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돕기에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나섰다. 조계종은 2억 원의 지원 기금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긴급구호단을 파견해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불교계 사찰과 단체들의 성금과 모금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조계종의 구호 행보다. 조계종이 구성한 긴급구호봉사대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선발대를 보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대를 파견했다.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대는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현지에서 긴급구호물품키트를 구성해 전달하는 구호활동을 펼쳤다.

〈현지 구호활동 차주 상보〉

봉사대는 레이테 섬 동부의 플레사 지역에 거주하는 4천여 가구 약 1만 7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쌀 10kg과 라면 10개, 소금, 설탕, 담요를 양동이에 담은 긴급구호키트 4천개를 플레사군청을 통해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구호 파견 전 브라핑에서 김동훈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대 선발대장은 "태풍이

지나간 모든 지역이 타클로반과 같이 심각한 재난상황이지만 주목 받지 못해 방치된 사각지대가 많다"며 "타클로반 동부 해안 빨로, 타나우안, 플레사 등 지역은 전력과 식량, 식량 공급을 통한 긴급구호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을 돕기 위해 조계종 전국 사찰들의 성금 답지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구본

조계종 긴급 구호단 파견

2억 원 지원... 성금 답지

조계사·천태종 모금법회도

사주지협의회(회장 돈관)는 1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필리핀 구호기금으로 2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사)홍법문화재단(이사장 정우도) 구룡사, 여래사와 함께 필리핀 구호기금 3000만원을 쾌척했다. 제5교구본사 범주사(주지 현조)는 11월 21일 아름다운 동행에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조계사는 11월 20일 필리핀 태풍 피해 성금을 모으려는 설치하고 불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태고종(총무원장)도 필리핀 돕기에 적극 나선다. 태고종은 11월 12일 중무회의에서 타클로반 지역주민들을 위한 구호성금 모금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으며, 종단 중진 스님과 신도회 등에서 성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은 11월 17일 '필리핀 태풍 피해 돕기 모금 법회'를 봉행했다.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순례법회를 열고 나누며나눔기회를 통해 필리핀에 성금을 전달 예정이다.

일선 사찰의 성금 모금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총본사 조계사(주지 도문)는 11월 20일 경내에서 필리핀 태풍 피해자 구호기금 모금함"을 설치하고 심시일만 모연을 시작했다. 조계사는 12월22일 동지까지 모금함을 설치하고 불자와 시민들의 동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토회 산하 구호단체 JTSD 생필품을 전하는 등 필리핀 재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로터스월드와 참여 불교재가연대, 우리는선우 역시 필리핀 재난 구호성금 기부를 기다리고 있다.

신종일·이나은 기자

"더욱 포교활동에 매진해 달라"

조계종 포교원, 우수전법도량 16곳 지원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1월 20일 포교 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전법중심도량 16곳을 지원하는 한편 2013 신규 전법중심도량 8곳을 선정했다.

우수전법중심도량은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청소년분야 및 장애인분야 포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지역별 113곳의 지역사찰이 선정되었다.

올해 우수 전법중심도량에는 서울 화계사를 비롯해 완도 신흥사, 창녕 창녕포교당, 의정부 회동사, 비로자나국제선원 등 16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찰에는 장애인용 카드, 디지털 피아노, 컴퓨터 등 1600

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수원 용주사와 예산 수덕사, 서울 흥천사 등을 신규 전법중심도량으로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전법중심도량은 121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포교부장 송목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법중심도량 지원이 미약하지만 중단이 포교에 나서는 사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며 "더욱 열심히 포교활동에 나서주길 바라며 종단도 더욱 많은 사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송목 스님(사진 오른쪽)이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에게 포교물품을 지원하는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중·일 불교대회 중하이난서 개최

26~28일 400여 명 참가

한중일 3국 불교계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제16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11월 26일 중국 하이난섬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총연합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18일 서울 종로 조계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하이난섬에서 진행되는 제16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일정을 공개했다.

한국불교총연합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 등 3국 불교

지도자 4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3국 교류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세계평화기원법회, 국제학술강연회 등 발표 등을 통해 3국의 불교교류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대회 둘째날인 27일 대회 개막 이후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를 중심으로 학술강연회가 열려 필리핀 태풍피해와 사천성 지진피해 등의 사례와 불교계의 기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측에서 조계종 서광 스님, 천태종 월도 스님이 대표로 발제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체부 우수도서에 불서 10여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산업 진흥 및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실시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월영 스님의 <계율, 꽃과 가사>, 동국대 정승석 교수의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서광 스님의 <치유하는 불교 읽기> 등 불서 10여권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불서는 종교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아동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고루 우수도서로 이름을 올렸다. 문학 분야

에서는 법안 스님의 <스님의 생각>, 김용필 씨의 <화경에서 배우는 성공비결 108가지> 등이며, 아동청소년분야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이 발행한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와 <나는 김시습이다>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도서는 각각 500만원 이내에서 구입해 12월까지 공공 및 작은 도서관, 소외지역 초중고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2,500곳에 배포 지원된다. 신종일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 선정

올해로 6번째... 27일 선정기념식

조계종 포교원 산하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오는 11월 27일 오후4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교여성개발원 13주년 및 제6차 여성 불자 108인 선정기념식을 봉행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2003년부터 불교계 여성 지도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격년제로 여성 불자 108인을 선정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6차 여성 불자108인은 방송, 정치행정, 법률, 보건 의료, 경제, 언론출판, 문화예술, 교계단체, 사회단체, 복

지, 자원봉사, 교육연구, 포교신행 13개 분야에서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박강자 금호미술관 관장, 탤런트 김영애, 문보경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 한말산 화계사신도회장 등이 선정됐다.

1차 108인으로 불교여성개발원 창립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정경연 원장은 "창립 13년이 매우 감회가 깊으며, 650여명 여성불자108인이 무한한 여성의 힘, 어머니의 힘으로 불교계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나은 기자

환경미 피해 사찰에 긴급 방재

문화재청, 16개 사찰 및 전국 목조물 대상

아열대 기후 변화로 사찰의 환경미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사찰 문화재를 중심으로 환경미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충청·호남·제주 지역 총 88개소 지정 문화재에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 '공주 마곡사 대웅전' 등 16개 사찰에서 환경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조사와 별개로 '부산 범어

사 대웅전'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 5건에 대해 긴급방재를 실시하고 6건 12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긴급보수비를 지원해 방재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조사결과 방재가 필요한 54건 255동에 대해서는 군체 제거시스템, 토양처리, 방충·방부처리 등을 시행했다.

문화재청은 2014년에는 서울·부산·경남·인천·경기·강원지역의 목조문화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종교 방송도 이제 HD로 본다"

BTN, 12월부터 HD 송출

BTN불교TV(이하 BTN, 대표 구본일)가 종교방송사 최초로 HD방송을 송출한다. BTN의 HD방송 송출로 인해 앞으로 BTN 시청자들은 기존 아날로그 화질에서 벗어나 고화질로 BTN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2008년부터 HD방송을 준비해온 BTN

은 4년 여 동안 준비를 갖추고 지난 1년간 모든 프로그램을 HD로 제작했다.

최덕주 전략기획실장은 "HD방송 장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온 BTN이 HD방송 송출을 시작함에 따라 고화질 방송을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해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동행, NGO·복지단체 지원사업 공모

오는 12월 20일까지 접수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NGO를 대상으로 '2014년 아름다운동행 NGO 및 복지단체 지원 사업'을 12월2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저소득가정 복지 증진 △인도적 지원 위한 국제개발 △대북, 탈북자 복지 증진 △환경보전 및 의식고취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한 단

체당 최대 1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NGO 및 사회복지단체, 복지시설로서 어느 곳이나 신청이 가능하며 e메일(thenanum@hanmail.net), 우편(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직접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2014년 1월~12월 1년간 진행한다. 신종일 기자


www.btn.co.kr

종교방송 최초 HD방송 송출

BTN불교TV가 고화질HD 영상포교시대를 선도합니다.



HD방송 장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온 BTN이 2013년 12월 **olleh** KT IPTV를 시작으로 HD방송을 시작합니다. 고화질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로 BTN 시청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시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BTN불교TV에서 더욱 선명한 화질로 불교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olleh KT IPTV를 통해 HD화질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추후 케이블방송과 기타플랫폼에도 점차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입니다.



대외협력국 인재채용

불교텔레비전(주)에서는 본사 및 전주, 안동, 전주, 울산, 원주 지역의 지사확대를 위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모집분야는 사찰영업 (광고, 협찬 등 사찰 사업담당) 및 취재업무입니다. 불교활동 경험자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접수기간 ~2013년 12월 4일까지
접수서류 이력서, 사진, 자기소개서
모집분야 사찰영업 (광고, 협찬 등 사찰 사업담당) 및 취재업무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관련문의 ☎ 02-3270-3360
접수방법 이메일일시지원 [bigdy4@btn.co.kr] 또는 우편접수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137-851)]



방송문의 02.3270.3333 | ARS후원 060.800.7000

facebook.com/BTNkorea | www.btn.co.kr

youtube.com/user/BTNWORLD